



# 자동차도 구독한다

현대차 '현대 셀렉션' 구독 프로그램 론칭  
월 72만원 쏘나타·투싼·벨로스터 두번 교체  
미니, 3가지 종류 멤버십 운영  
'올 더 타임 미니' 서비스 전국 확대

자동차도 신문이나 잡지처럼 구독료를 내고 이용한다고? 그렇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구독경제'가 확산하고 있다. 전통적인 신문·잡지에서 출발해 음반·책·옷으로 영역을 넓혀더니 자동차·항공기에도 구독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 자동차 시장에 파고든 구독경제는 여러 자동차를 이용해 보고 구매를 결정하거나, 특정 기간 자동차가 필요할 때 안성맞춤이다. 소유보다 공유하는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와 맞아 떨어진다. 기업들도 선호한다. 다양한 고객의 취향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이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자동차업계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출시한 신형 쏘나타를 구독할 수 있게 했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 1월 '현대 셀렉션'이라는 구독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한 달에 72만 원(부가세 포함)을 내면 쏘나타, 투싼, 벨로스터 가운데 원하는 차량을 거리제한 없이 두 번 교체해 탈 수 있다. 또 대형 SUV 팔리세이드, 그랜저 스타렉스 리무진, 코나EV 중 1개 차종을 월 1회, 48시간(2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제공해 용도에 맞게 다양한 차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달 출시한 신형 쏘나타를 현대셀렉션 라인업에 교체 투입, 한층 진화한 신형 쏘나타를 구독으로 만날 수 있다. 리스는 특정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구독은 다양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보험·정비 등 차량 소유와 관련된 모든 성가신 부분도 구독료에 포함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절차 없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 계약부터 반납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는 차량 구독서비스 전문업체 에피카와 손잡고 '올 더 타임 미니'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했다. 멤버십 가입비와 구독료를 내고 원하는 미니 차량을 선택해 탈 수 있는 구독 형태다. 3가지 종류의 멤버십은 ▲1년 중 최대 6개월 동안 원하는 달에 원하는 MINI 차량을 골라 탈 수 있는 '데굴러' ▲3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MINI의 모든 차량을 체험해볼 수 있는 '트라이얼' ▲1년 내내 원하는 차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에픽' 등이 있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는 지난 2017년 미국에서 개달락, 포르쉐, 볼보 등 자동차 업체들이 먼저 시작하면서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프랑스 국영철도회사는 16~27세 젊은이들의 여행상품으로 79유로만 내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고,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구독할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트렌드 전환 주기가 빨라지고, 소비 패턴도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것을 경험하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특히, 20~30대 젊은층은 불황기에 목돈을 들여 자동차를 구매하려고보다 매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실속을 챙기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7주년  
광주일보

## 서남권의 중심 호텔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외 귀빈과 V.V.VIP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SHANGRIA BEACH HOTEL

● 객실편의시설 ● 무료 WiFi / 케이블 채널 시청이 가능한 TV / 냉장고 / 미니바 / 전기 주전자 및 생수/암막 커튼 / 전용 욕실(세면용품 제공) / 매일 하우스키핑 서비스

## AMAZING NIGHTSCAPE OF MOKPO

아름다운 목포 바다의 야경을 객실에서 직접 감상하세요

**목포상그리아비치호텔**  
58747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  
www.shangriahotel.co.kr

##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 전속모델 본격 활동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 전속모델에 선정된 문가경(왼쪽부터)·유진·이다령·반지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 유진·반지희·이다령·문가경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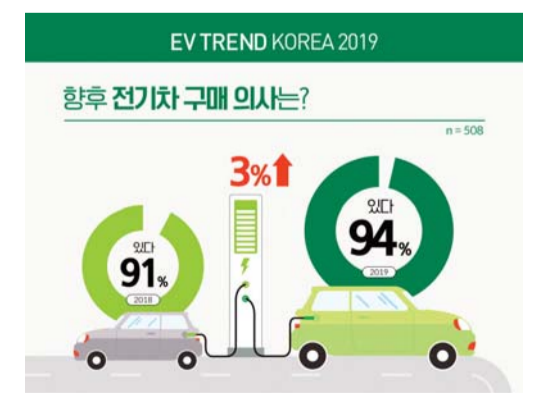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가 최근 2019년 전속 레이싱모델로 유진·반지희·이다령·문가경 등 4명을 선정, 올시즌 모터스포츠 활동에 본격 나섰다. 이번에 선발된 전속 레이싱모델들은 27~28일 펼쳐진 '2019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이하 CJ 슈퍼레이스) 개막전을 시작으로 모든 라운드에 참가해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을 응원할

다. 이들은 라운드 경기장에서 포토타임, 그리드워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내 모터스포츠 팬들과 만난다.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은 가수 겸 방송인인 김진표 감독을 중심으로 일본 출신의 전 F1 드라이버 이대유지, 정의철 선수와 4명의 전속모델 등으로 구성돼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해 팀/드라이버 부문 더블 챔피언 달성에 도전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소비자 94% "전기차 살 생각 있다"

### 'EV TREND KOREA' 사무국 설문

소비자 94%가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 29일 친환경자동차 전시회 'EV TREND KOREA 2019'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성인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475명(94%)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가장 타고 싶은 전기차 브랜드로는 '테슬라'를 꼽았다. 테슬라는 전체 응답자의 31% 지지를 받았고, 현대자동차(27%), 기아자동차(11%), 포르쉐(9%), 쉐보레(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최대 주행거리(45%), 성능(24%), 차량 가격(17%), 디자인(9%), 국가보조금(5%) 등이 전기차 살 때 눈여겨볼 요인으로 뽑혔다. 구매 이유는 저렴한 연료비(49%)와 세금감면 및 국고 보조금 등 정부 혜택(19%)을 1순위로 꼽았다. 반면 전기차 구매에 부정적인 응답자는 '충전인



프라 부족' (82%)을 가장 우려했다. 충전기술의 발전과 충전 1회 주행거리가 늘어나도 충전인프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V TREND KOREA 2019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친환경과 전기자동차의 높은 관심을 가진 국민들의 관심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